

신자료 소개: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 소재 규방가사 3편의 작가 고증을 중심으로

정기선*

<차례>

1. 서론
2. 자료 개괄
3. 작가 고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새로운 규방가사 작품 3편과 그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에는 (1) <북천가>, (2) 『제문』, (3) <가군의 슈연가>, (4) <빅남의 슈연가라>, (5) <가친의 슈연가라>, (6) 『제문』의 순서로, 4편의 가사와 2편의 한글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 <가군의 슈연가>, <빅남의 슈연가라>, <가친의 슈연가라> 3편의 가사는 지금까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사이다. 작가의 정체를 추적한 결과 <가군의 슈연가>와 <빅남의 슈연가라>는 이수형(李壽瀟, 1837~1908)의 차녀가, <가친의 슈연가라>는 그녀와 정재관(鄭在寬) 사이에서 낳은 딸이 창작한 것임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작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작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자료적 가치는 대단히 특별하다. 더욱이 학계에 익히 알려진 경상북도 지역이 아닌 경상남도 함안을 중심으로 창작 및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규방가사 장르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 『북천가』, <가군의 슈연가>, <빅남의 슈연가라>, <가친의 슈연가라>, 경상남도, 함안, 이수형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현전하는 대부분의 규방가사는 작가를 알 수 없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방가사 자료집인 『규방가사 I』¹⁾과 『규방가사: 신변 탄식류』²⁾에서도 작가가 명시된 작품들은 극히 드물다. 설령 작가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택호(宅號)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작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작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 근래 규방가사의 작품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진행된 것도 연구대상으로 삼은 규방가사 작품들의 작가가 분명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³⁾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유교적 관습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전승으로 인해 규방가사의 작가를 고증하는 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규방가사의 작자를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이른바 개화기 서사가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아온 <생조감구가>⁴⁾의 경우 현대문학 연구자와 서지학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통해 <생조감구가>의 작가가 이증린(李中麟, 1838~1917)의 딸로 퇴계 이황의 13세손인 이사호(李似鎬, 1870~1948)임을 밝힌 바 있다.⁵⁾ <생조감구가>의 작

1)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 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3) 고순희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2002. 이 책에서 검토한 유명씨 작가와 그들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안동 권씨(1718~1789), <반조화전가>; 전의 이씨(1723~1748), <절명사>; 연안 이씨(1737~1815), <쌍벽가>, <부여노정곡>; 남원 윤씨(1768~1801), <명도자탄사>; 순원왕후 김씨(1789~1857), <김대비훈민가>; 효현왕후 김씨(1828~1843), <태평사>; 은진 송씨(1803~1860), <금행일기>; 남양 홍씨(1851~1923), <홍씨부인계녀사>; 윤희순(1860~1935), <의병가> 등.

4)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 시고』, 『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

5) 장인진·남상권, 「<생조감구가>의 작가 고증과 작가 가문의 항일운동」, 『반교어문연

가를 고증하는 일련의 작업에서 해당 작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을 면담한 연구 방법은 규방가사의 작자를 추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필자는 규방가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방문 조사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⁶⁾ 자료를 처음 대할 때에는 자료에 수록된 가사 작품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자료에 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이들 가사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규방가사이며 작가를 확증할 수 있는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 신자료의 출현이 요원한 고전문학의 경우,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전하는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작가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규방가사 존재는 특기할 만하다. 이에 본고는 앞선 언급한 연구 방법에 힘입어 새로운 규방가사 작품과 그 작가를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2. 자료 개괄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자료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⁷⁾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자료의 서명을 ‘북천

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남상권·장인진, 『이대본 <생조감구가> 주석』, 『반교어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남상권, 『<생조감구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6) 자료 열람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가로 밝히고 있으나 앞표지에 있던 표제는 떨어진 채 표제를 붙였던 흔적만 남아 있다. 현재 상태로는 자료의 원래 서명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 앞표지에는 능화문이 얼핏 보이지만 기름을 먹여 보관한 탓인지 표지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이며 능화문도 잘 보이지 않는다. 뒤표지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통 방식대로 오침안장을 했지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앞뒤 표지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다시 네 군데 구멍을 뚫어 오늘날 서류를 철하는 흑표지로 묶어 놓았다. 이처럼 원래 서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본고에서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명칭인 『북천가』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1 『북천가』 앞표지



그림 2 『북천가』 뒤표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는 가로 29.3cm, 세로 31.7cm, 44장 81면 분량의 필사본이다.⁸⁾ 각 면마다 12~14행, 각 행마다 16~24자를

7) 현재 이 자료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고서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古 811.13 북814”이다.

8) 전체 48장이지만 82면부터 88면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채 비어 있다.

계선을 두지 않고 줄글로 적었다. 본문의 첫 장은 앞표지에 먹인 기름이 배어 글자 판독이 다소 불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뒤 표지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다시 검은색 표지로 칠하는 바람에 몇몇 부분에서는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본문의 글자를 판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작가의 성명이나 저작 연대를 비롯한 여타의 정보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우선 이 책에는 4편의 가사와 2편의 한글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된 순서는 (1) <북천가>, (2) 『제문』, (3) <가군의 슈연가>, (4) <빅남의 슈연가라>, (5) <가친의 슈연가라>, (6) 『제문』이다. 비록 가사와 한글제문이 함께 있지만 수량이나 분량에 있어서 책의 대부분을 가사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사 작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림 3 (1) <북천가>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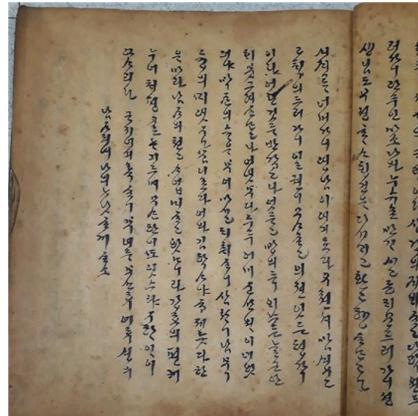


그림 4 (1) <북천가> 13a

(1)의 경우, 작가에 관한 정보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북천가’라는 제목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의 “이조의 그누리런고 칼집고 이리

서 “ 술들고 춤을추니 ” 철니 적길이라 장부도 다를시고 조흔다시 말을 타니 명천이 어디미요”와 말미에서의 “군산월이 네왔더니 박존의 술을부어 마시고 디취흐니 삼천니 남북등의 씨엿구나 씬이로다 어와 김학스야 급제누다 한을마라 남즈의 천고스업 너흐고 왓느니라”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1)은 조선 철종(哲宗) 때 함경도 명천(明川)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곳의 기녀 군산월과 사랑을 나누고 방면되어 고향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노래한 김진형(金鎭衡, 1801~1865)의 <북천가>의 이본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 81면 중 26면에 걸쳐 필사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편찬자가 무척이나 공을 들여 필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설문 및 면담 등의 방법 등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 여성들의 가사 향유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이 원주에 따르면 김진형의 <북천가>는 수위를 다룰 정도로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향유된 가사라고 한다.⁹⁾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 책이 규방가사를 향유하는 문화권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3), (4), (5) 가사 3편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들의 수연(晝宴)을 소재로 창작되었다. 분량을 살펴보면 (3)은 16면(20a~27b)에, (4)는 9면(27b~31b)에, (5)는 14면(31b~38a)에 걸쳐서 필사되어 있다. 가사문학을 집성한 『역대가사문학전집』에 이들 작품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작품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작품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작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가에 관한 정보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작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9) 이원주, 「가사의 독자」,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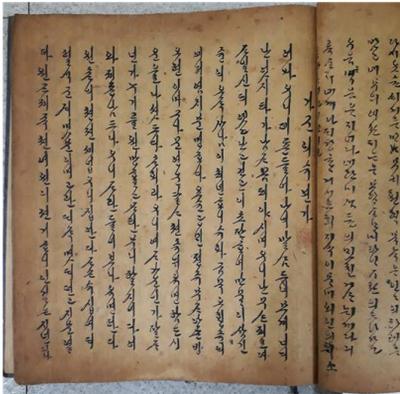


그림 5 (3) <가군의 슈연가> 20a



그림 6 (4) <빅남의 슈연가라> 27b

(3)은 여자로 태어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들을 설명하면서 “신축원월 초오일은 우리부군 경갑이라”며 신축(辛丑)년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특히 작가는 “티슈헝츄 금일광치 도우는데 등왕각 촌치런가 인물도 장홀시고 모춘삼월 난정회예 이와갓치 모와던가”라며 잔치의 흥취를 한껏 자랑하며, 말미에서는 “호시절의 귀령 부모 다시하여 잇씩갓치 즐겨보시 육아장 일너보니 싱아구로 하신은혜 갑기로 싱각하니 호천망극 아날년가 주즈갓치 어진니도 슈모시를 지어시니 너 아모리 여지오나 일장가사 업스리오”라며 (3)을 짓게 된 이유를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한다. 작가 고증과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가족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빅남’에 관해 “우리빅남 효우도 출신홀썸 지학이 통탈하야 천심을 요동하니 어희 조홀시고 무즈삼월 조홀시고 니십전 소연등과 음연진중 학우풍도 어스화 분홍관디 화동상저 압셔우고 도문영전 순성후의 청아한 말근곡조 조석으로 희롱하니”라며 그가 스무 살 이전에 과거에 급제했으며 그 해가 무자(戊子)년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4)도 (3)과 마찬가지로 여자로 태어나 부모형제와 이별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임오원월 초팔일은 우리빅남 슈연니라 귀령심스 울적할제 즈모의 은인함과 동괴달아 효우로서 귀령일츠 바다오니 환희심스 그지업다”라며 임오(壬午)년에 있었던 ‘빅남’의 생일이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였음을 밝힌다. 이후 (4)는 잔치의 성대한 모습과 함께 한 여러 친척들의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4)의 주인공인 ‘빅남’은 (3)에서 언급한 ‘빅남’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데 (3)과 (4)의 내용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4)에서는 작가의 가족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4)의 주인공 ‘빅남’이 작가의 오빠라는 점, 작가에게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는 점, 작가의 어머니가 60세 이전에 별세했다는 점, 특정할 수 없지만 작가와 관련된 누군가가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으나 무주와 강계에 두 번 유배를 갔으며 그곳에서 6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 그것이다.¹⁰⁾

신세 한탄을 앞세운 (3)과 (4)와 달리 (5)에서는 “건곤니 조판하고 음양이 시분후의 초목금슈 만물 중의 유인이 최령이라 일거의 무교하면 금슈

10) “무정한 이동싱도 한즌술노 축슈호오 칠십연 지니거든 회혼잔치 쏘보리라 숙덕부인 조흔금실 빅세동낙 축원이요 금년으로 복직하여 만금티슈 하시거든 우리부모 사판 되셔 단가영양 축원이요 (중략) 호화중도 소회만다 후덕선심 우리선비 회갑년을 못 지났다 잇찌까지 계섯기로 무산연세 고심허리 이날당흔 오라부님 구로지감 업술손야 잇디까지 계섯기로 무산연세 고심허리 이날당한 오라부님 구로지감 숙여지형 옷 갓형님 천연오절 원통하다 일기혈릭 이달여도 심면할길 묘연하니 현철호신 못골형 입 조연천상 어인일고 혈 〃 한 독즈아들 적년포병 간장이야 그리던 이동싱이 이번도 못보느일 창원지회 돌디업고 현숙한 관동집은 우리부모 말여로다 이날심면 바라더니 식부거상 못오느일 전 〃 불미 흐깃꾸나 반가운 슈티괴별 싱남이나 축슈로다 형테 등 이신명이 흠할곳 업느지나 삼십이 못되여서 진스부인 밧쳐잇고 오남미 자녀두어 맛아히 성취하니 인물지화 일흠이서 명경초시 과혹도다 다만무산 회익이셔 두번적소 이원일고 이외의 무쥬거람 실혼상백 흐엿도다 슈천리 강계지형 육연풍상 할일이야 그사이 머리 거연빅발 되엿꾸나 세상의 원복업셔 그한가지 한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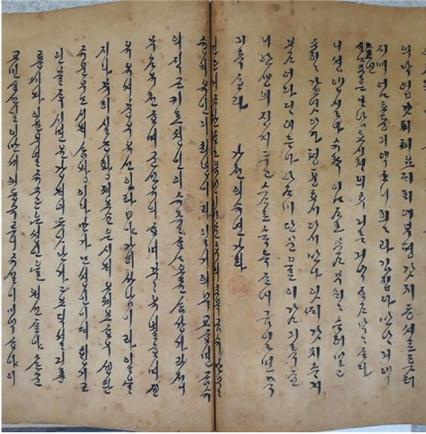


그림 7 (5) <가친의 슈연가라> 31b~32a

의직 근키로 성인이 슈출하사 오름습 강 가라치니"라며 교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자신을 특정하지 않은 (3)과 (4)와 달리 (5)는 “퇴계선 강싱하니 도덕문장 빅세시라 흥강선싱 우리선조 도슨적전 아니신가”라며 자신을 한강(寒岡) 정구(鄭述, 1543~1620)의 후손으로, “니 비록 여식이나 무심히 넘길손가 츠레로 흥즈하니 (중략) 이만하고 두어다가 회훈시에 다시

흥시 옛날의 슈부스는 슈모시를 디어다니 금일에 정소저는 슈부시를 지어보시"라며 자신을 ‘정소저[鄭小姐]’로 칭하고 있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불민흔 니일신니 우리부모 일여로서 귀히” “즈라 나서 이문의 출가하니”라며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5)의 작가는 (3)과 (4)의 작가와는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간략하지만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 책이 시기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문화적으로는 규방문화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북천가>의 새로운 이본과 더불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규방가사 3편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가 갖는 자료적 가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겠다.¹¹⁾

11) 본고의 목적이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에 수록된 규방가사의 작자를 해명하는 것이기에 이 책에 수록된 <북천가>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진형의 유배가사인 <북천가>와 규방가사가 함께 수록된 것은 특별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김진형 소작의 <북천가>의 이본 현황을 전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김교리북천가』(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되어 있으나 권순희의 논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는 가사 4편만 수록된 것이 아니라 제문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들 제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른바 ‘가사집’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편지, 제문, 상장문 등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은 규방가사의 전승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¹²⁾ 특히 제문은 망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가 집필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망자와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가 누군가의 부탁으로 제문을 집필한다 할지라도 망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집필할 수 있기에 (2)와 (6)이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문을 일별해보면, 두 제문 모두 서두에서 ‘명실’이라고 자칭하는 여성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작성했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현고침낭부군’이라고 부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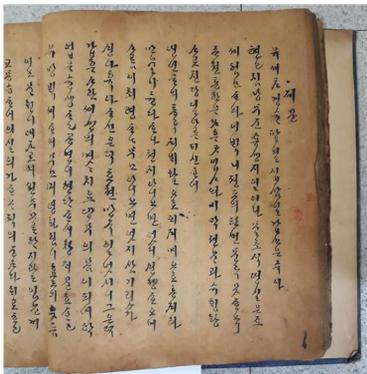


그림 8 (2) 제문 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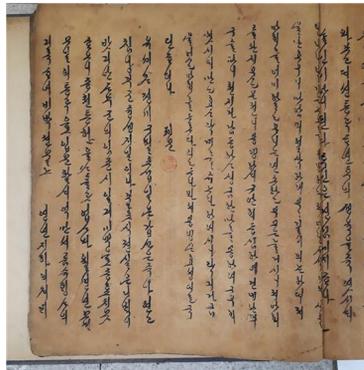


그림 9 (6) 제문 39a

에서는 『김교리북천가』로 서명을 표시했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진형의 조각의 유배가사인 <북천가>의 이본 현황과 이들 문헌의 성격을 비교 고찰하는 일을 차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권순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김영진 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의 자료적 가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10, 294~298면.)

12) 최규수, 『규방가사의 ‘글하기’ 전략과 소통의 수사학』, 명지대학교 출판부, 2014, 32쪽.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문 2편은 동일인의 소작으로 판단된다. (2)은 13면(13b~19b)에 걸쳐서, (6)은 7면(38a~41a)에 걸쳐 필사되어 있는데, 분량상 (2)가 (6)보다 상세한 내용을 싣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2)을 중심으로 작가의 정체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3. 작가 고증

가사 3편을 창작한 작가의 정체를 추적하는 데 소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2)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세죽 경술 팔월십삼일 갑신은 죽아 현고침낭부군 종생지일이라 불초식 덩
실은 조세 험노호와 이박니 정도의 한번 분곡 못하고 중천통한을 쓰홀 곳 업스
와 비박전물과 슈형황스로 친당 달아를 대신호여 (중략) 불형이 여즈로서 원부
모를 할지라도 임군게 교봉승호여 의실의가 호올격의 군즈와 히로호고 즈손이
션호여 부모구고 위열홈이 그도 효형 아니릿가 오호통지라

서두에서 이 제문이 경술년 아버지의 제삿날을 맞이하여 작성되었으며, 작가가 자신을 ‘덩실’이라고 불렀음이 확인된다. (1)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이 책은 19세기 후반에 생산된 자료이므로 경술(庚戌)년은 1910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덩실’은 구개음화를 고려하여 ‘鄭室’ 또는 ‘丁室’, 둘 중 하나이므로 제문의 작자는 정씨 집안에 시집간 여성으로 추측된다. 제문의 작자는 ‘달아[姪兒]’들을 대신하여 제문을 찬술했다고 저술 동기를 밝혔는데, 여성으로서의 신세 한탄의 내용이 한바탕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출가외인으로 아버지 제문을 작성하는 부담감을 덜기 위한 일종의 겸사가 아닐까 한다.

부군은 덕성이 강정하고 문장이 출뉴호와 조연 연방의 성망이 즈〓 하니 부귀
 현면 뜻을 두면 탐낭취물 갖것마는 당부의 평싱스업 의리밧게 쏘 잇스리 도〓
 한 이세상의 용납흐기 어려워라 남황서지 원악지의 방륙이 몇번인고 (중략) 처
 음 비소 무쥬 적의 강보의 쓰힌 쇼여 니친지회 아리잇가 을히년 춘습월의 다시
 정비 엿진 일고 이철니 강계읍을 쏘의는 드럿던가 그시의 부군 춘추 쇠모지경
 당우하니 비일병형 저거름을 엿더케 득달흐며 장히풍도 누습흔디 엿지 거쳐흐
 시는고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행적이 보다 자세히 기술된다. 작가는 덕성과 문
 장이 출중하여 못사람들의 선망을 받은 아버지가 부귀가 아니라 의리에
 뜻을 두어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남황서지 원악지의
 방륙이 몇번인고”라며 자신의 아버지가 몇 차례 유배를 갔다고 하면서 뒤
 에 구체적인 배소(配所)를 적어두어 주목을 요한다. 아버지의 첫 번째 배
 소는 전라도 무주였고, 두 번째 배소는 평안도 강계였다.¹³⁾ 특히 “을히년
 춘습월의 다시 정비 엿진 일고 이철니 강계읍을 쏘의는 드럿던가”라는 구
 절은 아버지가 유배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
 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이 책에 등장하는 일
 련의 사건들은 19세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작가의 아버지가 강계
 에 정배된 을해(乙亥)년은 1815년 또는 1875년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특
 히 유배형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관찬 사
 료인 『조선왕조실록』 등을 활용하면 을해년에 강계에 유배된 이가 누구
 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을해년에 해당하는 1815년과 1875년은 물론 그 전후로 범위를 넓혀 1814
 년부터 1816년까지, 다시 1874년부터 1876년까지 조사를 한 결과 환곡 및

13) 이를 통해 앞서 (4)에서 무주와 강계에 두 번 유배를 간 이가 바로 (2)의 작가의 아버
 지임을 알 수 있다.

전세를 비롯한 지방 재정에 관한 기사, 국경에서 비적을 공격하는 기사, 강계부사에게 내리는 비망기 등등 다양한 내용을 찾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가 눈길을 끈다.

“형조(刑曹)에서, ‘이중진(李中振)은 창성부(昌城府)로, 이수형(李壽滢)은 강계부(江界府)로, 이장호(李章浩)는 삭주부(朔州府)로, 이병수(李炳秀)는 용천부(龍川府)로, 모두 원악지(遠惡地)에 배소(配所)를 정하여 오늘 당장 길을 세 배로 재촉하여 압송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¹⁴⁾

“형조(刑曹)가 아뢰기를, “삼가 전교대로 죄인 이중진(李中振)은 평안도 창성부(昌城府)로, 이수형(李壽滢)은 강계부(江界府)로, 이장호(李章浩)는 삭주부(朔州府)로, 이병수(李炳秀)는 용천부(龍川府)로, 모두 원악지(遠惡地) 정배(定配)하여 오늘 당장 길을 세 곱으로 잡아서 압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 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¹⁵⁾

전자는 『고종실록』 소재 기사이고, 후자는 『승정원일기』 소재 기사이다. 올해년 곧 1875년 3월 24일에 작성된 두 기사는 공히 강계에 정배된 이로 이수형(李壽滢)을 언급하고 있다. 전자에서 이수형에 관한 기사는 같은 해 전날 3월 23일자 기사가 유일한데 그 기사는 단순히 3월 24일에 거행할 형벌을 예고하는 내용에 불과하다.¹⁶⁾ 후자에서는 6건의 기사가 도

14) “刑曹以“李中振 昌城府, 李壽滢 江界府, 李章浩 朔州府, 李炳秀 龍川府, 並遠惡地定配所, 當日三倍道押送”啓.”, 『고종실록』 권12 고종 12년(1875) 3월 24일자 기사.

15) “刑曹啓曰, 謹依傳教, 罪人李中振, 平安道昌城府, 李壽滢, 江界府, 李章浩, 朔州府, 李炳秀, 龍川府, 並遠惡地定配所, 當日三倍道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고종 12년(1875) 3월 24일자 기사.

16) “거제 유생(居齋儒生)과 난잡한 무리를 이미 처분하였다. 한 패거리인 이중진(李中振), 이수형(李壽滢), 이장호(李章浩), 이병수(李炳秀)도 모두 형조에서 같은 원칙으로 일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二十三日. 命齋儒與亂類輩, 已處分矣. 同類人李

출되지만 그 중 2건은 전자와 같은 3월 23일과 24일자 기사이다. 따라서 나머지 4건의 내용을 제문과 비교해보면 ‘이수형’이 제문 속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878년(고종 15) 1월 25일자 기사는 서원을 복구해달라는 경상도 유생들의 상소로, 상소를 올린 유생들의 명단에 이수형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제시되어 있지 않다.¹⁷⁾ 이후 1880년(고종 17) 1월 2일자 기사에는 강계에 유배된 이수형을 감동하여 평창으로 정배하라는 내용이,¹⁸⁾ 1882년(고종 19) 6월 12일자 기사에는 이수형을 특별히 사면하라는 내용이 보인다.¹⁹⁾ 『승정원일기』에 드러난 이수형의 구체적인 행적을 (2)의 다음 부분과 비교해보자.

인편의 호신 말슴 쇼여 등을 위로하며 이따히 비록 머는 이전의 회지선싱 적거하던 고을이라 디현의 유풍으로 인심이 순후호고 그뉘의 정한 슌름 성형이 전일하여 거처의식 봉양철이 각고를 잇긋구나 그러므로 육연 한셔 지닌 후의 평창 이비 반갑도다 은명을 bat조오고 즉일치형 호실 적의 불상호고 감격하다 (중략) 부군은 필마로서 평창읍 도박호니 성신은 동 // 하나 일향 존안 그리워라 다시 녹연 지닌 후의 천심이 감동호와 방환지명 나리시니 혼실이 혼 // 호여 천 은을 감축호니 음곡의 양춘이요 혼구의 빅일이라

여기에서 작가는 적소인 강계에서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는 아버지 소식과 더불어 6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평창으로 이배된 사실에 자식으

中振, 李壽滢, 李章浩, 李炳秀, 亦並令秋曹一體舉行.], 『고종실록』 고종 12년(1875) 3월 23일자 기사.

17) 『승정원일기』 고종 15년(1878) 1월 25일자 기사.

18) 『승정원일기』 고종 17년(1880) 1월 2일자 기사.

19)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6월 12일자 기사.

로서 느끼는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내용은 1875년에 강계로 정배된 이수형이 6년이 지난 1880년에 평창으로 이배되었다는 『승정원일기』의 내용과 부합한다. 그리고 이수형과 관련된 『승정원일기』 기사 중 시대적으로 가장 늦은 1895년(고종 32) 12월 27일자 기사는 궁내부(宮內府)에서 이수형에게 순릉참봉(順陵參奉)을 임명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²⁰⁾ 작가가 (2)와 (6)에서 공통적으로 아버지를 침랑(寢郎) 곧 ‘현고침낭부군(顯考寢郎府君)’으로 부른 것은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수형이 순릉참봉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2)와 (6)을 지은 작가의 아버지는 이수형(1837~1908)으로 최종 판단된다. 본고의 목적은 이 책에 수록된 (3), (4), (5)의 작가가 누구이며, 이들이 (2)와 (6)의 작가의 아버지인 이수형과 어떤 관계인지를 해명하는 일이므로, 이 문제에 국한하여 이수형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문집인 『효산집(曉山集)』을 통해 생애를 개괄해보면, 이수형은 1837년 경상도 함안의 모곡리(茅谷里)에서 이유주(李有柱)의 2남으로 태어나 종손인 이유환(李有煥)에게 입후되었다. 1852년 16세의 나이에 영산신씨(靈山辛氏) 신지정(辛志鼎)의 딸과 혼인하여 오남매를 두었다. 1859년 하과(夏科)에 응시하여 생원에 선발되었고, 1864년 증광시(增廣試) 생원이 되었다. 1867년 경상도 함안에 있는 도림서원(道林書院)에서 회강(會講)을 했는데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도림서원이 훼철되자 남아 있는 요사(寮舍)를 서당으로 삼고 춘추(春秋)를 회강했다. 서원의 재물을 가져가려는 읍의 대부를 저지하다가 무함을 입어 무주로 귀향을 갔다. 1874년 성균관에 유학하던 중 영남 사류들과 함께 동교(東郊)로 나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봉환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강계에 정배되었

20) 『승정원일기』 고종 32년(1895) 12월 27일자 기사.

다가 평창으로 이배되었다. 이 같은 인연으로 이수형은 흥선대원군 및 그의 아들 이재면과 서신을 주고받기도 했다.²¹⁾ 1884년 겨울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고, 1886년 5월에 생모상을, 7월에 부인상을 당했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1895년 순릉참봉에 임명되었는데 부임 후 시사가 날로 그르게 되는 것을 보고 낙향하여 선조의 문집들을 편찬 및 간행하면서 이황과 이현일 등의 선현을 기리는 일을 하다가 1908년 8월 13일에 즐했다.²²⁾ 슬하에 다섯 남매를 두었으며 1886년 곧 병술(丙戌)년에 연달아 생모상과 부인상을 당한 내용은 아래의 (2)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오호통지라 불초등 오남미의 천석이 거둥이라 빅남과 여형은 부군의 적거시의 차례로 성취하고 불초의 방언이 〃팔이 넘어가니 부모의 존이 서로 빅연즈황 즈황보시라고 명문의 턱셔호와 과도편의 흐시더니 쥬물이 시괴흐다 여익이 미친턴가 병술연 호오월의 왕모하세 망극하며 불초여의 궁천죄악이 소 〃이이 지둥하여 그년칠월 초구일의 선비게서 아홀지간 불초등을 바리시니 천호귀호아 이엇진 변이온고 가실이 황낙하니 쇼년참상 다름업고 남녀혼가 미필하니 습세유익 실모한듯 오호 〃라 부군 〃아 우리선비 티임지형의 향슈동낙 못흐시니 모다 불초여의 죄익이라

여기에서 (2)의 작가는 자신의 형제가 오남매인데 아버지가 유배 중에 ‘빅남’과 ‘여형’이 차례대로 혼인을 했다고 말을 한다. 『효산집』에 수록된 『가장(家狀)』에 따르면 이수형은 장남 이현기(李鉉琪), 차남 이현재(李鉉梓)를 두었으며, 장녀는 정규락(鄭逵洛)에게, 차녀는 정재관(鄭在寬)

21) 이들의 글을 모은 것이 『백운래홍첩(白雲來鴻帖)』이다. 1979년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8호로 등록되었다가 2015년에 해제되었다.

22) 이수형의 생애는 한국문집총간 해제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김은정, 『『효산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11, 한국고전번역원, 2013, 398~401쪽 참조.

에게, 말녀는 손기갑(孫基甲)에게 시집을 간 것으로 되어 있다.²³⁾ 전통시대에는 나이순으로 혼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빅남’은 장남인 이현기를, ‘여형’은 작가의 언니로 정규락에게 시집간 장녀를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2)와 (6)의 작가는 이수형의 둘째 또는 셋째 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와 (6)에서 저자는 자신을 ‘덩실’이라고 불렀다. 결국 ‘덩실’은 정씨(鄭氏) 집안에 시집을 간 ‘정실(鄭室)’이며, 자신보다 먼저 시집 간 언니가 있다는 점에서 (2)와 (6)의 작가는 정재관에게 시집을 간 이수형의 차녀라고 확정할 수 있다.

이상의 정보를 통해 가사 3편의 작가를 확인해보자. (3)의 작가는 ‘우리 빅남’이 무자(戊子)년에 과거에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수형의 장남 이현기는 일찍이 1882년 문과 초시 입격하여 무자년에 해당하는 1888년에 문과 복시에 직부했다.²⁴⁾ 『승정원일기』 속 이현기의 기록과 ‘우리빅남’의 이력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가군(家君)인 아버지의 수연을 위해 귀녕(歸寧)한 이수형의 차녀가 (3)을 지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4)의 작가가 자신에게 오빠와 언니와 여동생이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60세 이전에 고인(故人)이 되었다고 한 것은 (2)의 작가인 이수형의 차녀가 설명한 자신의 가족사와 대부분 부합한다. 정황상 (4)도 이수형의 차녀가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4)와 달리 (5)는 자신을 한강 정구의 후손으로, ‘정소저[鄭小姐]’라고 자칭했으며 “불민흔 너일신니 우리부모 일여로서 귀히” “즈라 나서 이문의 출가후니”라고

23) “二男三女, 男張鉉琪·次鉉梓·女婿進仕鄭達洛·鄭在寬·孫基甲, 庶女二人文斗衡·裴文哲. 鉉琪生二男二女, 男圭浩·璋浩, 女長適孫基賢·次幼. 鉉梓生一男三女皆幼. 達洛二男幼, 在寬無嗣取族子健鎬爲后. 基甲三男幼. 圭浩一男幼.”, 이훈호(李熏浩), 『가장(家狀)』, 『효산집』 권8 부록.

24)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3월 20일자 기사, 같은 책 고종 24년(1887) 9월 14일자 기사.

했다. (2), (3), (4), (6)의 작가가 정재관에게 시집을 간 이수형의 차녀임을 확인했지만, 이 책의 내용만으로는 그녀와 (5)의 작가인 ‘정소저’와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효산집』에 수록된 『가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중 필자는 최근 이수형의 직계 후손을 만나 이수형 집안의 가계를 수록한 『재령이씨족보』²⁵⁾를 열람할 수 있었다. 거기에서 (2), (3), (4), (6)의 작가인 이수형의 차녀가 혼인한 정재관이 청주인(淸州人)이며 슬하에 일녀(一女)를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5)의 작가가 자신이 ‘일여’로 자랐다고 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5)의 작가가 자신의 선조라고 자신 있게 밝힌 ‘훈강선성’ 정구가 청주인(淸州人)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5)의 작가는 (2), (3), (4), (6)의 작가인 이수형의 차녀와 정재관 사이에서 낳은 딸임을 확정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에 수록된 가사 4편 중 <가군의 슈연가>와 <빅남의 슈연가라>는 이수형의 차녀가, <가친의 슈연가라>는 그녀와 정재관 사이에서 낳은 딸이 창작한 것임을 밝혔다.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작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가를 확인할 수 있는

25) 이 족보는 단기 4302년 12월 10일에 인쇄되어 이듬해인 4303년 10월 10일에 발행된 것으로, 재령이씨의 여러 분파 중에서 함안군에 세거하는 분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이다. 저작 및 발행을 담당한 이들 모두 함안군 산인면에 거주했으며 발행소인 익심재(翼心齋)는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소재한 재실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필자는 그동안 이 족보를 쉽게 구득할 수가 없었다. 귀중한 자료의 열람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이길섭(李吉燮)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홍섭·이원섭, 『재령이씨족보』 권1, 익심재, 1969.

이들 작품의 가치는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9세기 후반 근대전환기 반가(班家)에서 산출된 이들 가사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여성들의 의식을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경상북도 지역에서 창작 및 향유된 것이라는 점에서 경상남도 함안을 중심으로 창작 및 향유된 이들 작품은 경상남도 지역의 규방가사의 양상을 조망하는 데에도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한계도 분명하다.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의 정체를 확인하는 목적은 달성했는지 몰라도 작가의 생애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가사 작품들의 창작 연대를 정확히 해명하는 일과 수연을 비롯해 경축을 목적으로 창작된 규방가사 작품들과의 비교 등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남은 과제는 이들 가사를 면밀히 분석하는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

이수형, 『효산집』, 한국문집총간 속 142, 한국고전번역원, 2012.

이홍섭·이원섭, 『재령이씨족보』 권1, 익심재, 1969.

고순희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2002, 1~324쪽

권순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김영진 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의 자료적 가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10, 1~426쪽.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648쪽.

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1~591쪽.

김은정, 『『효산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11, 한국고전번역원, 2013, 1~480쪽.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 시고』, 『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 139~160쪽.

이원주, 『가사의 독자』,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9, 1~245쪽.

남상권·장인진, 『이대본 <생조감구가> 주석』, 『반교어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365~409쪽.

남상권, 『<생조감구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275~302쪽.

장인진·남상권, 『<생조감구가>의 작가 고증과 작가 가문의 항일운동』, 『반교어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141~188쪽.

최규수, 『규방가사의 ‘글하기’ 전략과 소통의 수사학』, 명지대학교 출판부, 2014, 1~326쪽.

ABSTRACT

Introduction of New Materials: Centered on the Writers of
Three Gyobang-Gasas from *Bukchon-ga*(北遷歌) of the Central Library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Jung Ki-sun

This article was written to introduce three new works of Gyobang-Gasa and their writers. The Bukchon-ga(北遷歌), the headquarters of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ntains four Gasa and two Hangeul memorial address in the order of (1) Bukchon-ga(北遷歌), (2) Hangeul memorial address(제문), (3) Gagunui Suyun-ga(가군의 슈연가), (4) Baknamyi Suyun-gara(백남의 슈연가라), (5) Gachinui Suyun-gara(가친의 슈연가라), and (6) Hangeul memorial address(제문). Of these, (3), (4), and (5) are the words that have not been known to the academic community until now. As a result of tracking the writer's identity, it was confirmed that (3) and (4) were written by the daughter of Lee Soo-hyung(李壽滢, 1837~1907), and (5) was written by the daughter of her and Jeong Jae-kwan(鄭在寬). This work, which can grasp the identity of the writer in terms of the fact that most of the Gyobang family do not know the writer, has a special resource value. Moreover,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genre of Gyobang-Gasa in that the mother and daughter created the lyrics and created and enjoyed the Gyeongsangnam-do Haman, not Gyeongsangbuk-do, well-known in the academic world.

Key Words Bukchon-ga(北遷歌), Gagunui Suyun-ga, Baknamyi Suyun-gara, Gachinui Suyun-gara, Gyeongsangnam-do, Hanman, Lee Soo-hyung(李壽滢)

논문투고일 : 2019.07.16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